솔로 요린 '화끈한 신고식'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튼튼병원 인공관절 내비 수술

10대 그룹서 1만명 '시간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북적 26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롯데·한화·CJ·GS·한진·LG·삼성·신세계·SK그룹·신한은행 등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가 참여해 130여 개의 직종에 걸쳐 1만 명 규모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연합뉴스

정시모집 수학이 당락 가른다

상위권 대학 수시는 영어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열쇠 · "SKY 인기학과 530점대 후반 넘어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26일 발표됐다.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다. 개인 성적표는 27일 통보된다. <관련기사 3면>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너무 쉬웠던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A·B형 모두 지난해처럼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는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의 난이도 차가 뚜렷했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영어 B형은 상위권 수험생이 집중적으로 응시한 영향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외국어 영역보다 떨어졌다.

특히 수학이 어렵고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정시모집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B형에서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인원이 줄어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에서는 영어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비율)은 국어 A형 132점(1.25%), 국어 B형 131점(0.92%), 수학 A형 143점(0.97%), 수학 B형 138점(0.58%), 영어 A형 133점(1.13%), 영어 B형 136점(0.39%)이었다.

지난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27점(2.36%), 수리(가) 139점(0.98%), 수리(나) 142점(0.76%), 영어 141점(0.66%)이었다. 영어 B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외국어보다 5점 하락했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 A형 128점, B형 127점, 수학

A형 137점·B형 132점, 영어 A형 129점·B형 129점으로 나왔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10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 간 난이도가 고르지 못했지만 지난해보다는 격차가 조금 줄었다. 한국사와 경제, 세계사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1문제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질 정도로 쉽게 나왔다.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 지망생들은 어떤 영역을 택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입시업체들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 인기 학과에 지원하려면 표준점수가 530점대 후반에서 540점대 중반이 돼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진학사는 서울대 의예과는 543점, 경영대학은 540점이라고 합격선을 추정했다.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은 539점, 국어교육은 535점, 생명과학부는 533점이 넘어야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고대 인기 학과 합격선은 530점대 후반으로 예측됐다. 연세대 경영 537점·자유전공 534점·영어영문 531점, 고려대 경영대학 537점·자유전공학부 533점 등이다.

서울지역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연세대 541점, 고려대 539점, 성균관대 540점, 한양대 538점으로 추정됐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별,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방법과 비율이 다르므로 주요 대학 합격 추정선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반드시 대학 기준 환산점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세계지리 정답 하나만 인정"

한편 평가원은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세계지리 8번 문항 등에 대해서는 수능 당일 발표된 교과서에 준하는 정답 하나만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metroseoul.co.kr

김여사 주차걱정 끝! 무인 발레파킹 성공

1980년대 14석대 미드라 할 수 있는 '전격Z작전'에서 주인공이 손목시계에 대고 "키트!"라고 하면 자동차가 바로 앞까지 달려왔던 장면이 실제 눈앞에 펼쳐진다.

스마트폰으로 주차를 하거나 원하는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6일 이 같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주차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차량 주차관리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주차 공간을 파악, 스스로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이다.

또 운전자가 내렸던 장소를 기억해 운전자가 명령하면 주차된 공간에서 운전자의 위치로 돌아온다.

무인 이동 중 차량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은 차량에 부착된 5개의 카메라와 10여 개의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피할 수 있고 주차 때에도 충돌을 막는다.

◆ ETRI "5년내 상용화될 것"

ETRI 관계자는 "5년 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가 어려운 장애인도 차량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배상훈기자

국민은행 한 곳뿐일까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KB국민은행에서 불거진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들은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수취 등의 비리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 사고에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 당국조차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가 엉망이라며 더는 묵과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전국 1100여 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감사 인력이 고작 9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실제 영업점 감사를 벌이는 인력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개가 넘는 점포를 관리·감독하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한 지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국민은행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부 시장을 속속들이 알게 돼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는 국민은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금융 당국도 이번만큼은 금융사고 관련자는 물론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은 '신뢰'가 '생명'이다. 백마디 말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예산안 연내 처리 안되면 140조 집행중단 / 일자리 예산·양육수당 지출 '스톱'

'한국식 셧다운' 가능성

내년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제도가 가동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최소 40% 이상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과 정부의 일시 차입이 중단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000억원의 재정 지출 중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으로,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규정한 예외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법률상 지출 의무(의무지출)의 이행,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계속사업비) 등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상의 재정 지출액 35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168조8000억원, 재량 지출은 188조9000억원이다.

정부기관 인건비가 약 30조원, 시설 유지비가 15조원, 계속사업비가 약 3조5000억원 등으로 재량 지출에서 이들 비용을 빼면 약 140조원이 지출 불가 대상이 된다.

주요 지출 중단 대상 예산에는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20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양육수당, 실업교육 예산 등이 포함된다. 10조원 상당의 복지지출 사업 중 재량 지출도 진행되지 않는다.

/김민준기자 minjun@metroseoul.co.kr

산타 원정대 출발! 2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3 산타원정대 런칭식'에서 디스코리아 톱신 산타원정대 4명과 어린이 산타들이 포토 이벤트를 위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마라도 영공도 침범

● 일본이 1969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이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1969년에는 영해 기준이 우리 섬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부터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해 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내달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

● 12월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다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 취소된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한다.

'채동욱 의혹' 원세훈 측근이 유출?

서초구 국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불법정보 제공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자택을 조사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 국장은 개인 비리 및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송다혜기자

표준점수냐? 백분위냐?

Issue&View 대입 정시모집 지원전략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1점이라도 유리한 수능 반영방법·모집군 찾아야

26일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면서 이제부터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각 대학의 전형별·모집군별 특징, 수능 성적 반영 방법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수능 100% 전형 늘어

정시는 수능과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수능만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수능을 잘 치렀다면 수능 우선선발 전형이나 수능 100%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능 우선선발 전형은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일부를 먼저 선발하는 것이나 이때 나머지 인원은 수능과 학생부를 합산해 일반선발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 우선선발 비율은 30~70%인데 70%를 우선선발하는 대학이 많은 편이다.

수능 우선선발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 수능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수능 우선선발 전형은 특정 영역 성적이 특히 좋은 수험생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수능 100% 전형은 모집 인원 전체를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다는 점에서 수능 우선선발과 다르다. 정시에서 대부분 대학이 하나 이상의 모집군에서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한다. 수능 반영 방법을 살필 때는 수능 활용 지표, 반영 영역, 영역별 반영 비중, 특정 영역 가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전형 방법 모집군별 제각각

분할 모집 대학 대부분은 모집군별 전형 방법이 다르다. 대체로 하나 이상의 모집군에서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고 나머지 모집군은 수능 성적+학생부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집군을 선택하는 게 좋다.

수능 활용 지표는 대부분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나뉜다. 다만 일부 대학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반영하거나 등급을 반영하기도 한다. 표준점수는 점수 간격이 좁아 순위가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백분위보다 변별력이 더 우수하다. 상위권 주요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 B·수학 A·영어 B형을, 자연계열은 국어 A·수학 B·영어 B형을 지정해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의의 천사들 "촛불과의 약속"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 종합관에서 열린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3학년 진희승 양 등 71명의 간호대 학생들이 환자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임대 입주민 30% 임대료 못냈다

SH공사 관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 서울시 의회)

SH공사

체납 가구수: 15714 / 17265 / 20335 / 27303(?)

체납 금액: 46억 500만원 / 52억 8200만원 / 69억 7500만원 / 77억 9100만원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9월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도 급증했다.

26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500만원으로 2년 새 51.5% 늘었다.

임대료 체납 가구 수 역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2012년 2만335가구로 29.4%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1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체납액을 넘어섰다. 2010년과 비교하면 67.4% 증가한 것이다. 체납 가구 역시 2만335가구로 늘었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6.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증가했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5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도희기자

112에 7000번 허위신고 79세 할머니 결국 구속

전남 영암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강모(79·여)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7000여 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도둑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의 허위신고에 속아 실제로 39차례 출동했다.

또 강씨는 경찰서에 수시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이웃들에게도 수시로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숙자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이후 아들의 죽음이 경찰의 잘못이라며 악감정을 품은 것 같다"며 "고령에 잘 아는 처지에서 선처했는데 정도가 매우 심각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연합

경희사이버대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미래IT계열, 인문·사회 경영계열 등 계열별 모집 단위를 도입했고, 기존 19개 학과에 신설된 모바일융합학과, 스포츠경영학과가 더해져 총 21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다. 고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편입생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에서 35학점 또는 70학점 이상 수료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문의 02)959-0000

지역 하천정비공사 '찔끔찔끔'

예산 부족으로 곳곳 사업 난항 · 보상작업 완료 안된 곳도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부산지역 하천정비사업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미확보로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좌광천 등 9개 하천정비사업 사업비 중 국비 116억6000만원에 대한 시 대응투자비 96억5300만원 중 72억900만원을 여태 확보하지 못했다.

하천정비사업 대상은 좌광천, 일광천, 장안천, 석대천 상류, 송정천과 생태하천조성·복원대상인 괴정천, 수영천, 초량천, 수영강 하류 등 9개 하천이다. 이들 모두 국·시비 매칭 사업(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사업)이다.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해운대구 동천교~금정구 회동수원지 방류구 2.8㎞ 구간의 미정비된 하천의 실대적 복원을 통한 친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2년 1월 시작돼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올해 국비 10억원에 대응할 시비 10억원 중 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송정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과 하천 주변 개발로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친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한 주민 복지 향상이 목적인 사업으로 올해 국비 대응투자인 시비 667억원 중 334억원이 미확보 상태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완공예정인데 아직 보상작업도 완료하지 못했다.

석대천은 지하철 4호선과 연계한 하천기능 회복사업으로 올해 필요 예산 중 시가 부담해야 할 18억5200만원 중 12억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 6년째에 접어들었다.

재해예방과 친자연형 정비가 목적인 일광천은 2006년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올해분 시비 6억2600만원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일광천 정비사업 준공 시점은 내년 2월이다.

좌광천과 장안천도 올해 사업비 중 시가 부담해야 할 6억700만원과 6억3400만원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좌광천은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3개 구간 공사만 준공하고 아직 1개 구간에 대한 공사가 남아있다. 2005년 정비계획이 수립된 장안천은 2010년 실시설계를 완료했지만 토지보상이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차 구간 착공조차 안 되고 있다.

시는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시 사업추진부서와 예산부서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니세프 더 나눔 패키지 롯데호텔부산 내달 선봬

롯데호텔부산(총지배인 김성환)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니세프 더 나눔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1일 3실에 한해, 슈페리어 객실에서의 1박을 누릴 수 있는 '원더 패키지'(16만원부터)와 디럭스 객실 1박에 호텔 베이커리 델리카한스에서 제공되는 브라우니 및 쿠키로 구성된 '유니세프 더 나눔 박스' 와 테이크 아웃 커피 2잔이 포함된 '쏘 스위트 패키지'(19만원부터)로 구성된다.

또 가족단위의 이용객을 위한 패키지도 마련된다. 더블 침대 하나와 싱글 침대 하나로 구성된 디럭스 패밀리 트윈 객실에서의 1박과 유니세프 더 나눔박스, 라세느에서의 조식 뷔페 3인, 유니세프의 담요를 포함한 '아이러브 패키지'(25만원부터)와 디럭스 스위트 객실 업그레이드와 델리카한스 테이크 아웃 커피 2잔을 추가로 제공하는 '아이 스위트 패키지'(32만원부터)로 구성됐다. 문의 051-810-1100

/정하균기자

비수술적 척추 치료 강좌

부산 동래우리들병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본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비수술적 척추 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호열 명예원장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주사치료, 예방과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및 최근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척추 신경성형술과 신경공 협착증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문의 051-559-5000

55기 마술지도자 강습 개강

(사)한국마술협회 부산시지부는 내달 3일 협회 주관으로 '제55기 마술지도자 강습'을 개강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1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4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마술을 담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게 구성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월 4일 2시부터 6시까지 송년 특별단기 마술강습도 개최한다.

송년 특별 할인으로 5만원이며 강사로는 조영준, 금빛나, 이정문, 최준광 마술사 등 10여명이 나선다. 문의 051-441-7895

유통가에 '레그패션' 인기 겨울을 맞아 부산 유통가에 스타킹이나 레깅스에 패션을 가미한 '레그패션'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작가공모전' 수상작 보러오세요

시민회관 한슬갤러리서 오늘부터 전시회

부산시민회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청년작가공모전 수상작가 2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부산시민회관(관장 강진철)은 지역의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제5회 청년작가공모전 수상작가 전시회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부산시민회관 한슬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개최해온 부산시민회관 청년작가공모전은 올해 23명이 접수, 1차 심의에서 9명을 선정한 데 이어 2차 심의에서 작가인터뷰와 전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류현욱(한국화), 정호상(서양화) 작가 등 2명을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이종현 관장(대전시립미술관), 권순교 작가(서양화), 박은주 회장(한국문화예술비평가협회), 홍푸르메 교수(고신대학교 회화과), 박영근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등이 전문 심사를 맡았다.

이들 전문심사위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본 공모전을 통해 배출되는 청년작가들이 지역 문화·예술의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하고 미래가 아주 밝다"고 입을 모았다.

최우수 작가에게는 창작지원금 4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 우수작가에게는 창작지원금 2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수상자 모두에게 개인전 기회 기회와 함께 전시회 포스터, 팸플릿, 엽서 등 전시를 위한 혜택이 지원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전문평론가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우수와 우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busan.co.kr

부산과기대 中 대학생 캠프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5일 중국 대학생을 초청해 어학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이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산동성 동영직업학원(东营职业学院) 학생 16명과 교직원 4명이 초청됐다.

이들 학생은 오는 29일까지 기본 한국어 어학 과정과 함께 부산과 경주 일원을 둘러보며 한국요리수업, 천연비누만들기, 태권도 등 다양한 한국문화체험도 할 예정이다.

최진식 한중문화통역과 학과장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이 대학 한중문화통역과 학생 13명이 동영직업학원을 찾아 열흘간 어학 및 문화캠프를 실시한 바 있다.

/정하균기자

해썹 적용업체 기술세미나

부산지방식품의약안전청은 효율적 해썹(HACCP) 운영과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부산·울산 경남지역의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27일 부산지방식약청 대강당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의 선행요건 및 해썹 관리 기준 ▲우수 해썹 적용업체의 관리사례 발표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애로·건의 사항 수렴 등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적용 방법을 대상자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남포역 따라 영도다리 추억이…

스토리텔링 대형 트릭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 테마공간 조성

도시철도 남포역이 추억의 테마공간으로 변신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달 27일부터 개최되는 영도대교 도개 행사에 맞춰 편리한 행사 관람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영도다리 테마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도개행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남포역 6번 출구 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안내판 24개소를 정비하고, 역주변안내도 10개소에는 행사장 위치를 추가했다. 대합실 게이트와 6번 출구까지 바닥면에는 직경 1.2m 원형 유도 사인 8개를 연결해 행사장 가는 길을 쉽게 했다.

남포역 영도다리 추억테마공간은 승강장부터 6번 출구까지 이동 경로를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는 추억의 영도다리, 영도대교가 걸어온 길 등 스토리텔링을 제작해 부착했다. 대합실 유리 벽면에는 '영도대교는 삶과 희망의 다리다' 등 한 줄 아이콘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부산교통공사는 26일 남포역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영도대교 스토리텔링을 부착하는 등 기념 공간을 조성했다.

또 대합실 기둥면에는 1950년대 인물사진을 부착해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 출구 앞 바닥에는 심관이 들린 영도대교를 6m의 대형 트릭아트로 제작해 재미를 더했다. 출구 벽면에는 47년 전후의 영도, 영도대교 역사를 도표로 그려놓고 6번 출구 계단에는 영도대교 글자를 이미지화했다.

특히 공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개통식을 위한 특별수송계획도 수립했다. 본사 직원 등 19명의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공사 측은 1호선 노포·신평차량기지에 임시열차 2개 편성을 대기시켜 행사 관람객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각종 역사편의시설의 점검도 사전에 마쳐 행사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수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영도다리 도개 행사에 맞춰 고객 안내 강화와 추억테마공간을 조성했다"며 "영도다리 도개 관광은 도시철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illegible] metroseoul.co.kr

"관광·숙박업 한지붕 두가족 영업은 안된다"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건물에서 두 개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상국)는 해운대에서 콘도로 신고된 P건물 객실 일부를 위탁 운영하려던 G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숙박업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P건물을 건립한 D사는 2008년 2월 해운대구에 관광숙박업(휴양 콘도업)으로 등록하고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신고를 했다.

G사는 D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유자들의 객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2년 10월 해운대구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으나 해운대구는 P건물 전체 객실(331실)에 대해 이미 숙박업 영업신고한 관광사업자가 있고 G사는 관광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관광 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관광 사업자가 아닌 공유자들로부터 관광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객실을 위탁받아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 지붕 두 가족 영업을 하는 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 사건과 이 사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깔끔해지는 병원·약국 간판

시, 이달말부터 집중정비

부산 시내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간판이 깔끔해질 전망이다.

부산시가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와 품격 있는 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년 2월부터 추진해 온 업종별 간판 정비 사업을 이달 말부터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정비 대상 간판은 ▲크기와 수량 초과 등 규정 위반 옥외광고물 ▲가로형 간판 아래나 창문 및 벽면에 부착한 흘림 전광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간판 ▲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이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는 맞으나 미허가(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또 광고주가 직접 구청에 신고할 수 없을 경우 광고단체에 관련 서류 작성, 접수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김영환 도시경관담당관은 "영업이 잘되는 환경은 간판이 만든다'고 할 만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정비를 통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광고물 개선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간판 설치 시부터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6개 구·군에서 모든 업종의 신규 영업 업소에 대해 간판설치 안내문을 보내고 이를 통해 허가(신고)를 독려하는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뉴시스

갈맷길 걸으며 '우리 수산물 안전' 알려요. 부산 참도기업 BN그룹 대선주조는 지난 23일 임직원 500여 명이 갈맷길 4구간인 오륙도 선착장~이기대 7km 구간을 걸으며 '우리 수산물 안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발전 대상 받아

부산시는 부산형 창조도시 재생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인 지역발전 대상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낙후지역을 허물고 재개발하는 대신 지역 주민과 함께 주거·경관·교통·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부산형 창조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번 상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전국 시·도, 기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최우수 지역발전 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티투어 민간사업자 공모

부산시는 인기 관광 상품인 부산시티투어 사업의 신규 노선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는 신규 시티투어 운행 노선은 부산역~남포동~송도해수욕장~남항대교~75광장(목장원)~태종대~국립해양박물관~북항대교~오륙도~용호유람선터미널~경성대~부산역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며 부산시청 11층 관광진흥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관광진흥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호주서 한국인 여대생 살해 19세 용의자 검거…"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또 인종범죄? 한인 '패닉'

최근 호주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워킹홀리데이(워홀) 참가자를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경찰은 한국인 워홀러 반모(22·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호주 청년 알렉스 로벤 맥이완(19)을 조사 중이다.

맥이완은 지난 24일 브리즈번 도심에서 반씨를 폭행한 뒤 인근 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머리 부위가 크게 다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었다.

약 6주 전 호주에 온 반씨는 브리즈번에서 새벽에 청소 일을 해왔으나 사건 당일에도 청소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반씨가 성폭행이나 강도를 당한 증거는 없다"며 "검거한 용의자를 상대로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로부터 맥이완이 '아무나 닥치는대로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일종의 묻지마 살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호주 대도시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범죄가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반씨의 살해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교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범인이 금품을 빼앗지 않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인종 증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홀 비자로 호주에 다녀온 오모씨는 "학생들이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호주를 많이 찾는다"면서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영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백호주의가 뿌리깊어 현지에서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산업박람회에서 공개된 달 탐사차 '옥토끼'호 모형. /로이터 연합뉴스

中 달 탐사차 이름은 '옥토끼'

내달 창어 3호에 실려 발사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다음달 우주로 발사된다. 위성에는 달 탐사차 '옥토끼(玉兎)'호도 탑재됐다.

26일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국방과기국)이 창어3호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우즈젠 국방과기국 대변인은 "창어 3호가 쓰촨성 시창의 위성발사센터로 옮겨졌다"며 "기상 여건이 좋으면 12월 초쯤 발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창어 3호는 중국 최초로 달에 착륙해 탐사와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창어 3호에는 달 탐사차 옥토끼호가 함께 실렸다. 달 탐사차의 이름은 중국 국민과 세계 각국 화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옥토끼호는 달의 지형과 지질 구조를 탐사하고 각종 사진과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게 된다. 옥토끼호의 무게는 약 140kg으로 진공 상태에서 견딜 수 있고 영하 180도와 영상 150도를 오르내리는 달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조선미기자

中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백악관, 선동적 행위 비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선동적 행위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을 이같이 비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은 중·일 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곳으로 이런 분쟁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선동적 발언, 일방적 선포 등은 자제하고 서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에도 백악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부처를 총동원, 중국의 선전포고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 수위를 높인다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조선미기자

푸틴 교황 눈싸움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교황은 푸틴 대통령에게 "시리아 폭력사태를 조기에 중단시키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리아 국민을 구원해야 한다"며 미래의 협상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AP 연합뉴스

발암물질로 염색하는 중국인들

metro HongKong

최근 중국에서 화상, 염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겐티안 바이올렛을 이용한 염색이 유행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겐티안 바이올렛으로 염색하는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겐티안 바이올렛으로 염색했다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시험해봤다고 밝혔다. 그는 모발 보호제와 겐티안 바이올렛을 혼합한 후 머리에 균일하게 바르고 6시간 기다린 후 씻어냈다. 실내 조명에서는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보였지만 햇빛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였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확실하게 보라색 머리를 하고 싶으면 먼저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탈색을 하고 염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겐티안 바이올렛은 발암성이 있어 요오드나 과산화수소로 대체하는 추세"라며 "피부에 장시간 과다 사용할 경우 발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정리=조선미기자

歲月靜好 與君老
조용한 세월에서 그대와
함께 늙어가는 우리는
그대 위해 바다 건너 찾아온다
천가 신혜성님
생일 축하!
15년의 신화 메인보컬, 8년의 솔로가수
우리의 영원한 어린왕자님, 생일축하합니다!
가장 좋은 시절에 당신을 만나게 되어 다행였습니다
감정과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당신은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가수입니다
당신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랫 소리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힘을 줍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꾸준함
꿈을 추구하는 순수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남겨줍니다
당신의 발걸음에 맞추고 당신의 노력하는 모습을 따라 하며
어느덧 우리의 인생에도 햇살이 가득해진 듯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드러운 당신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된 우리들 마음도 따뜻하고 침착합니다
비록 나라가 다르지만
당신과 관련된 그날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노래를 모두 부를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는
가끔씩만 당신 옆에 나타나지만
우리의 꾸준함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초심은 그대로 사랑은 여전히
당신에 대한 축복을 가득 안고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대여
꼭 행복하길 바래요!
당신의 중국 애인들
2013년 11월 27일
2013-2014 신혜성 연말 콘서트
'THE YEAR'S JOURNEY'
성공을 기원합니다!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코스닥
2022.84 (+6.61)	510.54 (+2.78)

금리	환율
2.96 (-0.01)	1060.00 (-1.50)

뉴스 & 뉴스

소비심리 33개월만에 최고

● 소비자심리지수(CSI)가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CSI는 전달 106보다 1포인트 오른 10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10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99였던 CSI는 올들어 매달 100을 넘어서며 꾸준히 오르고 있다. /김현정기자

골드만삭스 "코스피 2350"

● 골드만삭스는 내년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인해 코스피가 연말 235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6일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현재 약 9배 수준에서 내년에는 평균치인 10배 정도(2350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과 내년 말 원·달러 환율의 전망치는 각각 3.7%, 110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내년 3, 4분기에 한 차례씩 오르며 내년 말 3.0%에 이를 것으로 봤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9가길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61

발행·인쇄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승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병권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자센터	02)721-9865

1997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라00090

블랙프라이데이, 나도 긁을래!

美 연중최대 세일시즌 '해외직구족' 겨냥 카드업계 포인트·경품 푸짐

미국 연중 최대 세일의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이번 주말(29일)로 성큼 다가오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득템' 준비에 나섰다. 신용카드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저렴하게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국내 카드업계도 포인트 적립, 경품 등 각종 행사를 내걸었다.

해외 결제·배송이 간편해지면서 클릭 한 번으로 미국 온라인 쇼핑몰의 세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인들의 연말 잔치를 넘어 한국 소비자에게도 '실속 쇼핑을 위한 온라인 메카'로 떠올랐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1월부터 다음달 27일까지(한국시간 기준) 자사가 지정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30곳에서 프리미엄 카드로 10만원 이상 쓰면 이용금액의 최대 6%(1인당 최대 3만원 한도)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또 블랙프라이데이 주간(11월 21일~12월 4일)과 크리스마스 주간(12월 20일~12월 27일)에는 캐시백 비율을 2배로 적용한다.

KB국민카드는 연말까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자사 카드 상품으로 해외 가맹점에서 10만원 넘게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캐시백으로 1만원을 제공한다.

또 KB국민 비자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 쓰면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KB국민카드 여행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KB국민 트래블 프리셋 카드' 200만원을 제공한다.

씨티은행은 '씨티 체크+신용카드'로 해외 웹사이트 결제 시 5% 할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SC은행은 지난 11월부터 29일까지 '캐시 패스포트' 해외 선불카드로 300달러 이상을 새로 구매하면 추가로 5달러를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환전수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해당 카드의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경품 행사도 제공한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블랙프라이데이 주말 직후인 월요일에도 사이버먼데이(미국 온라인 유통사들의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 결제를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카드사들도 관련 혜택 늘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다양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와 나티룩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아이휴 주최로 열린 제3회 아모리스 웨딩쇼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와 파티룩을 선보이고 있다. 웨딩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웨딩쇼에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 파티룩, 스마트 캐주얼 룩 주얼리 패션쇼 등이 선보인다. /연합뉴스

현금결제 살아있네

거래금액34% · 건수 41%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의 보급이 활성화됐지만 여전히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이 발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의 거래 비중(34.8%)은 지급 카드(신용·체크·직불카드)의 54.2%보다 낮지만 3분의 1을 넘었다. 사용 건수 비중으로도 현금은 41.3%로 지급카드(48.5%)와 격차가 크지 않았다.

적은 금액을 결제할수록 현금 사용 비중이 높았다. 1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시에 현금을 사용한 사람은 58.6%였다. 10만~50만원, 5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에서도 각각 23.1%, 16.8%가 현금으로 결제했다.

매일 현금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은 37.8%로 조사됐다.

신용카드(10.8%), 체크·직불카드(2.5%)가 뒤를 이었다. 1주일 1회 이상 사용 기준으로는 현금이 91.9%, 신용카드가 60.4%, 체크·직불카드가 45.6%였다.

이밖에 전체의 44%는 최근 3개월 동안 현금인출을 위해서 은행창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은기기자

N스크린 '콘텐츠 전쟁'

'응사' '롤챔스'는 티빙·드라마&이랜은 에브리온TV…차별화 몸부림

N스크린 시대를 맞아 IPTV·케이블 TV 업계가 킬러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개선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가 인기다.

이에 따라 IPTV와 케이블 TV 업계는 N스크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사 고객에게 편의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젠 보편화된 N스크린 서비스로 인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CJ헬로비전은 자사 N스크린 서비스인 '티빙'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 tvN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인기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이하 '롤챔스') 등을 단독 중계하며 인기 방송을 킬러 콘텐츠로 앞세워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특히 롤챔스의 경우 동시 시청자가 2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현대HCN의 '에브리온TV'는 드라마 전문 채널 CHING, 여성 오락 채널 TrendE, 아웃도어 여행 채널 ONT의 모바일 전용 채널을 올해 잇따라 론칭하며 승부를 걸었다. 현대HCN은 이 같은 자체 저작권 보유 콘텐츠 편성으로 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KT미디어허브의 '올레TV 모바일'은 다양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을 단독 제공하거나 프로야구 편파 중계 등 독특한 콘텐츠로 승부를 걸었다. 아울러 5만5000여개의 주문형비디오(VOD), 자체 제작 콘텐츠 '필통(FeelTong)' 등을 앞세워 모바일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N스크린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 업체들과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졌다"면서 "이 때문에 N스크린 서비스업체의 콘텐츠 업체와의 제휴, 자체 생산 콘텐츠나 독점 콘텐츠 등 킬러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직물·사슬 스프레이… 스노 체인 다양하네 롯데마트는 26일 겨울철을 맞아 포천이 우려된 제인과 스프레이, 체인, 제설기 등 차량용 월동용품 기획전을 열었다. 전국 110여 곳 롯데마트 매장에서 직물체인, 사슬체인을 포함한 다양한 스노 체인 7종이 4만1000원부터 11만8000원에 판매된다. /연합뉴스

삼성 '부사장→사장' 3.4년

삼성그룹에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3.4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삼성그룹에서 사장 이상 자리에 올라있는 49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부사장에서 사장까지 승진하는 데 1년 걸린 케이스도 6명에 달했다.

삼성물산 정연주 부회장과 삼성생명 박근희 부회장이 부사장 1년 만인 2003년과 2004년 각각 사장으로 발탁됐고, 고순동 삼성SDS 사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재권 삼성전자 사장, 박원규 삼성코닝정밀소재 사장 등이 1년 만에 한 단계 진급한 주인공이다.

반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데 7년이 걸린 사장도 3명이었다.

한지 삼성그룹 부회장들이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8.4년 걸렸다. 삼성그룹은 최근 5년 동안 배년 2명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illegible]기자

한국 지하경제 규모 314조

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이 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징수 가능한 최대 세수의 절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2000억원, 자영업의 탈세 규모는 3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거둘 수 있는 최대 세금의 48%만을 거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평균(70%), 신흥국 평균(69%)은 물론 저소득 국가 평균(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희철기자

초딩 70% 스마트폰족 "앱 50개는 깔아야죠"

국내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평균 5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체험학습 포털 커뮤니티 위크온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6일간 전국 초등학생 82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11명)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은 앱 수를 묻는 질문에는 76%(388명)가 '50개 이상'이라고 답했다. 반면 10개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1%(56명)에 그쳐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복수 응답)으로는 게임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메신저'(46%), '인터넷 검색'(39%), '공부'(21%), '전화'(18%)가 뒤를 이었다. /[illegible]

수도권 아파트 경매 올해 3만건 첫 돌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 물건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수도권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건수는 총 2만783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12월 말까지 예정된 물건을 포함할 경우 3만363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직전 기록은 2005년 2만9707건이었다.

이처럼 경매 건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경매 낙찰가 총액 역시 25일 기준 3조2568억원을 기록, 2009년 3조2289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을 나타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기 상황이나 경매 대기 물건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llegible]

갤럭시폰에선 '삼성뮤직'으로 음원 감상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음악을 고음질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인 '삼성 뮤직'을 25일 국내에서 시작한다.

삼성 뮤직은 글로벌 직배사와 인디 레이블 등 국내 소규모 음반사와 협력해 업계 최대 수준인 320만여 곡의 음원을 보유해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이외에 사용자 기호에 맞게 다운로드 전용 상품 4종, 무제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상품 4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 뮤직 서비스 개시

또 CD 음질의 4배 수준인 UHQ(Ultra High Quality) 음원으로 구성된 스토어를 오픈하고, 고음질의 음악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illegible]

26일 신형 제네시스의 신차 발표회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심車 '2세대 제네시스'

현대차 5000억 투입 신형 내년 6만대 목표 공식출사

현대차의 기술력을 집약한 신형 제네시스가 국내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26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정홍원 국무총리,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제네시스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다.

신형 제네시스는 2008년 현대차 최초의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으로 개발돼 첫선을 보였던 1세대 제네시스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스타일 ▲주행 성능 ▲안전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프리미엄 세단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형 제네시스는 현대차의 기술력을 총 집약하고 혹독한 성능 평가와 최고의 품질관리를 거쳐 새롭게 탄생했다"면서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함으로써 현대차 브랜드 가치는 물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48개월 동안 총 5000억원을 들여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킨 신차다. 디자인은 기존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이었던 플루이딕 스컬프처(Fluidic Sculpture)를 발전시킨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적용했다. 차체는 전장 4990mm, 전폭 1890mm, 전고 1480mm이며 기존 모델보다 75mm 늘어난 3010mm의 휠베이스로 넓은 실내 거주 공간을 갖췄다. 람다 3.3 GDI 엔진은 최고 출력 282마력, 최대 토크 35.4kg·m, 연비 9.4km/ℓ(2WD 18인치 타이어 장착 기준), 람다 3.8 GDI 엔진은 최고 출력 315마력, 최대 토크 40.5kg·m, 연비 9.0km/ℓ(2WD 19인치 타이어 장착 기준)를 나타낸다.

신형 제네시스는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을 현대차 최초로 탑재한 것을 비롯해 ▲전자제어 서스펜션(ESC) ▲가변 기어비 조향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구동력을 자동 배분하는 현대차 최초의 전자식 AWD 시스템 HTRAC(에이치트랙)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등을 장착됐다.

9 에어백 시스템을 기본 탑재한 신형 제네시스는 차량 회전 시 안정성을 높여주는 선회 제동 시스템(ATCC)을 적용하고 ▲현대차 최초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위험 상황 발생 시 시트벨트를 당겨주는 앞좌석 프리세이프 시트벨트(PSB) 등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보행자 충돌 시 후드를 들어 올리는 액티브 후드 시스템을 현대차 최초로 적용했고, 충돌 시 보행자의 무릎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행자 보호용 범퍼 스티프너 등 보행자 안전 또한 강화했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유럽 시장 등에 신형 제네시스를 선보이며 2014년 국내 3만2000대, 해외 3만 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6만2000대의 신형 제네시스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신형 제네시스의 판매 가격은 3.3 모던 4660만원, 3.3 프리미엄 5260만원, 3.8 익스클루시브 5510만원, 3.8 프레스티지 6130만원, 3.8 파이니스트 에디션 6960만원이다. /[illegible]

'체리베리 초코렛'사면 100원 자동기부… 토니모리 '100시간 크림' 1개당 500원 적립…

'착한 소비' 이벤트 줄잇는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유통업계가 발 벗고 나섰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 실천의 '고객 참여형 나눔 이벤트'가 한창인 것. 소비자가 특정 메뉴를 주문하거나 관련 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소정의 금액이 자동으로 적립돼 모아진 적립금으로 사회복지재단 등에 후원하는 방식이다.

이디야커피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연말 시즌을 맞아 '체리베리 초코렛, 그 달콤한 나눔' 이벤트를 12월 말까지 연다. 겨울 한정 판매 메뉴인 '체리베리 초코렛'을 구매하면 100원이 자동 기부되는 형식이다. 참가자 1000명에게 '2014년 이디야 플래너 세트'를 무료로 증정하는 일석이조의 나눔 행사로 구성했다. 구매만 해도 바로 100원이 자동 적립되기 때문에 메뉴 구매를 통해 추위를 날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빕스는 지난 6월부터 판매 수익금이 기부되는 스테이크 메뉴를 판매 중이다. 소외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한 '러브스테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객이 '빕스 넘버 원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수익금의 1%가 사회복지재단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소외·결식 아동에게 자동 기부되는 방식이다.

토니모리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입 수험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 원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모금 방식은 12월까지 판매되는 토니모리 플로라의 뉴트라-에너지 100시간 크림 1개당 500원씩 적립으로 이뤄진다. 총 1억원의 장학금이 대입 수험생에게 전달되며 장학금 신청은 12월 20일까지 희망 원해 캠페인 전용 e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국의 2014년도 대입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동후디스는 산양유아식 출시 1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사랑 나눔 사은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 1명당 10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고 총 적립액에 해당하는 후원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행사 기간 홈페이지에서 산양유아식 관련 퀴즈 풀기, 산양유아식을 먹은 아이의 사진 올리기, 아이 사진에 '좋아요' 누르기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jame@metroseoul.co.kr

11번가 모바일 쇼핑몰 1위

11번가가 모바일 쇼핑의 확실한 1등 자리를 굳혔다. 11번가는 26일 M(Mobile)-커머스에 진출한 기업 중 최초로 누적 거래액 6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거래액이 2800억원을 넘긴 지 단 5개월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올해 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배 수준인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M-커머스 연 1조원 시대를 열며 모바일 쇼핑 1위 자리를 굳게 지킨다는 계획이다.

11번가 박종민 모바일 그룹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 메인 페이지를 도입하는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UI)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모바일 환경을 개선한 노력이 '모바일 쇼핑 1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내년 봄·여름 플라워 프린트 인기" MCM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천국에서 꽃소년들(Flower Boys in Paradise)'이라는 주제로 2014년 봄·여름 패션쇼를 진행했다. 이번 콜렉션은 플라워 프린트 안에 있는 미소년의 모습을 통해 성별의 벽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꽃과 동물 문양을 중심으로 재킷, 바지, 핸드백, 액세서리 신상 등을 선보였다. /MCM 제공

中 미세먼지 공포 마스크 판매 10배

중국 동북부 지역 난방으로 발생한 고농도의 스모그가 또다시 우리나라로 유입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약 한 달 전 스모그가 한반도를 덮친 데 이어 지난 23일 오전에는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211㎍/㎥)와 초미세먼지 농도(148㎍/㎥)가 올가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겨울철 스모그는 봄철 황사보다 독성을 지닌 중금속 등 해로운 성분이 많아 온라인몰에서는 황사 대비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는 최근 한 달(10월 25일~11월 24일)간 황사용 마스크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96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판매량은 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황사에 노출됐다면 외출 뒤 손발뿐만 아니라 모공에 쌓인 미세먼지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최근 한 달간 손세정제 판매량도 전년대비 370%나 증가했고, 손소독기 판매도 47% 늘었다. 99.9% 항균 기능의 손세정제나 항균 비누를 비롯해 중금속 제거에 탁월한 녹차 세안수 등이 인기 상품이다.

미세먼지가 섞인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제품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면서 가습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에어워셔 판매는 같은 기간 2배 이상(113%) 증가했다. 휴대용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량용 공기청정용품 판매도 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시 체내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코 안쪽에 착용하는 삽입형 마스크 '노스크'와 유아용 황사 대비 제품인 '황사맘보 유아용 마스크' 등이 눈길을 끈다.

/김민지기자

보온성·스타일 다 잡은 아웃도어룩 납시오

올해는 한파가 심할 것이라는 기시 예보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패션리더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때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보온성은 기본이고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철 야외 활동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오프로드의 폭스파운틴 은두툼한 충전재가 들어간 패딩팬츠로 발수 소재를 사용해 겨울철 눈 위에서도 젖지 않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레깅스 아이템과 레이어드 매치하면 보온성을 겸비한 세련된 아웃도어룩을 완성할 수 있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다.

최근 젊은 여성 등산객 사이에서는 등산 치마와 레깅스를 매치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오프로드의 에코벡어 레깅스는 따뜻해 보이는 패턴이 멋스러운 여성용 레깅스 아이템으로 쌀쌀한 날씨에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때 유용한 아이템이다.

오프로드의 레어카비크 털모자는 안감에 퍼 배색과 충전재를 넣어 보온성을 높인 방한용 귀덮개 패딩모자로 측면의 패치 장식이 세련되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며 턱끈이 있어서 자유롭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귀덮개 버튼을 이용하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인턴 "올해만 같아라"

채용 늘고 70% 정규직 전환 성공

올해 채용된 인턴 10명 중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3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4%가 '올해 인턴을 채용했다'고 답했다.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기업이 42.9%로 '감소했다'(9.9%)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인턴들의 근무 기간은 평균 5개월이었고 주 업무는 70.8%의 기업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평균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율은 '100%'라는 대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50%'(12.4%), '90%'(9.9%), '80%'(6.8%), '7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대답은 11.8%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73%), 대기업(57%), 중견기업(55%) 순으로 전환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전환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으로는 근무 및 생활 태도(33.5%)가 1순위였고, 책임감·성실성(28.6%)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3년 근속자 '아싸! 2주 휴가'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⑤ 이지웰페어

사내 야구팀 전지훈련 후원에 내년봄 190명 전직원 괌 여행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름값

복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복지는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는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도 부러워할 만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덕분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년 근속마다 2주간 유급으로 주어지는 '리프레시 휴가'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바쁜 업무 때문에 마음놓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상용 대표 등이 적극 독려하고 나서면서 이제는 모든 해당 직원이 빠짐없이 즐기고 있다. 특히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휴가 후기를 공유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다.

사내 동호회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현재 7개의 동호회에서 전체 190여 명의 직원 중 1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여명은 2개의 동호회에 가입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회사 지원도 풍부하다. 동호회 활동비는 물론 리그 교육 참가비 등도 회사에서 대준다. 덕분에 야구동호회의 경우 최근 제주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했다.

가족 친화 복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평소보다 두 시간 이른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해피 프라이데이', 배우자·자녀 생일에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 기념일 조기퇴근제 등에 대한 직원 가족들의 호응도 크다. 특히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보장하는 '패밀리데이'에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회식은 물론 법인카드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전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이지카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지웰나눔봉사단' 활동도 애사심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지웰페어의 자랑거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3년 설립 이래 선택적 복지 사업, 중소 규모 법인을 위한 복지 패키지 사업, 사회 서비스 사업 등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온 덕분에 최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서울특별시, 코레일 등 820여 개에 달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도 더욱 늘어나면서 지난해 매출 270억원, 당기순이익 29억원이었던 경영 성과는 세 배가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웰페어는 이 같은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내년 3월 전직원 괌 여행을 계획 중이다.

이지웰페어 직원들이 사내에 마련된 이지카페에서 커피와 책을 즐기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수시 채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이지웰페어는 지난해 서울시가 인증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도 선정됐다.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사업 성장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전산팀, 웹 기획, 소프트웨어(SW) 개발,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대거 채용한 덕분이다. 올해도 60여 명을 채용한 이지웰페어는 내년에도 수시 채용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인재를 뽑을 예정이다. /kmlee@metroseoul.co.kr

구직자 북적 '일자리 한마당' 2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희망 일자리 한마당에서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면접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인재를 원한다

"채용 공고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입사하길 원한다며 자기소개서를 보내온 구직자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열정을 보인 직원이라면 이지웰페어의 즐거운 기업 문화를 함께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희석(사진) 즐거운직장팀 팀장은 뜨거운 가슴, 올바른 생각, 행복한 고객, 하나 된 마음으로 구성된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사팀 아닌 즐거운직장팀…답 나오죠?

인재라면 누구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문화가 이색적이다

▲일하기 좋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팀 이름부터 즐거운직장팀으로 재미있게 바꿨다. 사내 행사나 이벤트도 각 팀에서 한 명씩 선발해 만든 변화관리자들의 아이디어로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에 익명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

-채용 과정도 독특하다

▲서류전형, 면접 등 모든 채용 과정을 해당 팀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인사팀이 주도하는 다른 기업보다 좀 더 구체적인 업무 경험이 당락을 좌우하는 편이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홈페이지(www.ezwel.com)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과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에 대한 열정과 애사심을 보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된다. /이국명기자

잡코리아 '웰던투 애드워' 개최

크리에이티브로 하나로 승부하는 광고 대전이 열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웰던투 애드워(Welldone to adWAR)'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어워드는 광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및 예비 광고인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물론 평소 광고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반 부문은 TV 영상, 인쇄, 온라인 등의 광고나 아이디어, 한 줄 카피 등 창의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이면 된다. 대학생 부문은 대학생 광고, 아이디어 등 톡톡 튀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특히 타 시상식 수상작이나 기존에 제작한 작품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www.welldone.to/event/adwar)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접수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②

아나운서 목소리의 비밀 '복식발성'

울림 있는 목소리는 목이 아닌 배에서 나온다.

성악가처럼 복식호흡으로 발성을 하면 깊고 풍부한 목소리를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다. 발표 전달력을 높이는 데다 상대방에게 신뢰감 주는 느낌도 선사할 수 있다. 복식호흡의 관건은 배 속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다.

W스피치 학원의 도움을 받아 복식호흡을 연습해 봤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공기가 통하는 길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어난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면 체중을 싣고 있는 다리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아랫배에도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입을 다문 채 코로만 숨을 가득 들이마신다. 시신 씨 설명했듯이 어깨가 들썩이지 않고 배만 볼록하게 만들어야 한다. 배에 공기가 찬 느낌이 들면 배에 힘을 준 채 '아~' 소리를 내본다. 이때 목이 아닌 배에서 소리가 튀어나온다는 움직임을 느껴야 한다.

입 모양도 중요하다. 입안의 긴장을 풀어서 구강 내부를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야 한다. 혓바닥은 최대한 낮춰 목소리가 최대한 깊이 뻗어져 나오게 공간을 만든다. 목소리가 앞니 뒤쪽을 치고 나온다는 자세로 발성을 한다. 소리를 내는 동안 배는 점점 납작해질 것이다. 배 속 공기가 다 소진될 때까지 목소리를 길게 빼본다. 소리가 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식호흡에 익숙해진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배에 힘이 붙으면서 목소리에 탄력이 생길 것이다. 처음에는 '아~' 발성을 한 후 차츰 '대한민국~' 처럼 단어 길이를 늘려본다. 처음에는 감을 찾기 어렵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매끄러운 복식 발성으로 향상될 수 있다.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 목소리를 유심히 들으면서 복식 발성의 '배 힘' 목소리가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는 것도 좋다. /jumpup@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SBS '쓰리데이즈', MBC '파천황'(가제) 각각 주연을 맡은 김현중·박유천·한석규(왼쪽부터)

지상파 내년 대작 전쟁

내년 안방극장을 책임질 신상 드라마 라인업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3사가 다양한 장르의 대작을 편성해 시청자 마음 잡기에 나선다.

◆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방송 3사의 대작 중 가장 먼저 시청자들을 찾는 작품은 KBS2 수목극 '예쁜 남자' 후속으로 내년 1월 방영될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다. 이미 21일 첫 촬영을 시작한 이 드라마는 총 제작비 15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1930년대 한·중·일 주먹을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펼쳐내는 사랑과 의리, 우정을 그리는 감성 로맨틱 누아르를 표방하고 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을 통해 도시적인 꽃미남 이미지가 강했던 김현중이 거친 삶을 살아온 파이터로 변신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굿 닥터'의 박재범, '비밀'의 유보라 등 신인 작가들의 작품으로 흥행 맛을 본 KBS가 이번에는 지난해 TV단막극극본공모 최우수상에 당선된 신인 작가 채승대를 대작에 과감히 기용해 눈길을 끈다.

◆ SBS '쓰리데이즈'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SBS '쓰리데이즈'는 내년 2월 안방극장을 찾는다. 다음달 25일 방영될 전지현·김수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의 후속작이다.

드라마 '싸인' '유령' 등 장르물을 연이어 성공시켜 '한국형 스릴러'의 1인자로 불리는 김은희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난 전용 별장에서 저격 위험에 처한 대통령과 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호원의 긴박한 이야기를 그린다.

박유천은 바람 소리조차 놓치지 않는 경호실 엘리트 경호원 한태경 역을 맡아 남성적인 매력을 과시한다. 그의 복귀 소식에 아시아와 유럽의 해외 바이어들이 벌써부터 제작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MBC '파천황'

MBC '기황후' 후속으로 내년 4월께 방영 예정인 '파천황'(가제) 역시 기대작이다.

시청률 40%를 넘긴 드라마 '선덕여왕'의 김영현·박상연 작가, 박홍균 PD가 오랜만에 다시 뭉쳐 또 한 편의 대작 사극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50부작 정치 액션 사극으로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조선 건국 최후의 두 세력인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뿌리깊은 나무'에 출연했던 한석규가 정도전 역으로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4인4색 여배우 여행기 '꽃할배'와 분위기 180도"

'꽃보다 누나' 나영석PD

히트 프로그램 제조기 나영석 PD가 돌아왔다.

'할배'들의 배낭여행기를 담은 tvN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에 이어 프로젝트 2탄 '꽃보다 누나' 승기야 도망쳐!'(이하 꽃누나)를 선보인다. 26일 만난 나영석 PD는 "네 여배우의 일탈과 이승기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고 '꽃누나'를 소개했다.

29일 첫 방송되는 '꽃누나'는 윤여정·김자옥·김희애·이미연 등 네 명의 여배우들이 이국적 색채가 가득한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얘기를 담았다.

배우들의 섭외 배경과 관련해 나 PD는 "모두 15~20년 이상 현장에서 활약한 배우들로 섭외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관리를 받으며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생활해왔다"며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여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회차 방송을 편집 중인 나 PD는 "김자옥은 4차원 공주라고 할 수 있다. 김희애는 이상한 허당이다. '개그콘서트'를 빠놓지 않고 본다고 하는데 비슷하지 않은데 자꾸 흉내를 낸다. 이미연은 의외로 꽈다다. 늘 너무 앞서나가 되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여배우의 여정을 담은 '꽃누나'와 '꽃할배'의 분위기는 180도 달랐다.

나 PD는 "배우라는 타이틀 없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똑같이 100m를 걸어갈 경우 남성들은 대부분 앞만 보고 걸어가는 반면 여성은 100m를 걸어가면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건물 등 100가지가 넘는 것을 보면서 걸어간다"며 "'꽃할배'보다 5000배 정도 예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자기 짐꾼 이승기

이서진의 뒤를 이어 '국민 동생' 이승기가 '꽃누나'의 짐꾼으로 참여했다.

'꽃누나'에 합류한 이승기와 전작 '꽃할배'의 짐꾼 이서진과의 차이를 묻자 나 PD는 "비교할 수 없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어 "엄청 고생하고 깨지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illegible] 이승기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llegible]기자

부산 · 함부르크 · 상해 만남의 교류전

2013년 12월 3일(화) – 12월 22일(일) 부산진(기차)역

부산광역시 DAVIN art space 다빈예술공간협회 Hamburg 함부르크시문화국 상해미술가협회 협찬 BS 부산은행 대선주조

새로 나온 책

종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잭 콘필드/불광출판사

오늘의 나는 내가 그동안 극복한 시련의 결과물이며 시련이야말로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신성한 나의 재산이다. 하지만 시련을 극복하기란 언제나 쉬지 않은 법. 이에 책은 시련의 순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을 소개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에 깃든 고통스러운 감정과 사연을 풀어보자.

의학

의학의 달인이랑 식사하실래요? 2

김용수 강태희/청年우용

지난해 발행된 1권에 이은 후속편이니 의학자, 의료 영웅들의 뒷이야기를 소개하지만 아버지와 엄마가 식탁에서 밥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돼 지루하지 않다. 더욱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대부 김정권 화백의 삽화가 재미를 더한다.

정치/사회

한국군 코멘터리

박상진/책은

우리가 잘 몰랐던 군대 이야기. 한국전쟁 이후 특수한 안보 상황과 국민 개병제도로 한국인의 일상 및 담론과 관련이 깊어진 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보다 쉽도 있게 파헤쳤다. 국방부 출입 10년의 베테랑 기자가 전하는 한국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색다른 시각으로 만날 수 있다.

자기계발

강남 사모님의 특별한 조언

김국정/썸앤스

대한민국 0.1%의 상류층 재테크 지녀 교육의 대명사이자 럭셔리라이프의 상징인 강남 사모님들의 자기경영 비법을 담았다. 겉치레가 심하고 몰지각하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 시대 '여자 어른'이다. 그들이 말하는 현명한 선택과 성공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성과로 말한다

류랑도/흐름출판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성과 때문에 직장인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책은 이런 성과 때문에 고통받는 7년차 대리의 회사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직장인들의 내년도 성과급을 보장해주고 싶어한다. 매일 반복하는 '삽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괜찮다 중년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웅진윙스

자녀 학원비에 등이 휠 지경이지만 통명스러운 자녀가 원망스러운가? 상사에게 깨지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니 직장 내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증권회사 금융전문가들이 썼지만 돈에 빠진 돈 이야기가 아닌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현실감 있는 노후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자녀교육

악기를 배우는 아이는 왜 공부도 잘할까

박남미/아주 좋은 날

음악은 아이의 잠재능력을 키워 수는 도구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왜 악기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 음악 교육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 자녀의 음악 교육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

벡틀린을 그리다

에드워드 三 고든/북노마드

2006년 가을부터 '하루에 하나의 그림'이라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로 15×15㎝의 캔버스에 벡틀린을 담아온 작가.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벡틀린을 그려오면서 우주에 단 하나뿐인 순간의 빛을 포착해 도시의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유독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그 느낌을 짧은 문장으로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다.

산문

여자는 모른다

이우성/좋은북스

30대 중반에 9년째 남성 패션지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시인 이우성의 첫 번째 산문집. 이 땅의 수많은 괴짜들에게 서른 네 살인 자신을 투신해 여자라면 도무지 쉽게 알 수 없는 남자들의 속사정과 엉뚱한 속내, 무지의 자의식을 낱낱이 고백한다.

더부살이 소녀의 기적

30년전 드라마 최근 영화와 어쩌면 뻔한 성공 스토리로 전통·도덕성의 가치 일깨워

오싱 하시다 스가코/범조사

일본 야마가타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 오싱은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쌀 한 가마니에 팔려 남의 집으로 더부살이를 가게 된다. 이후 오싱은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결국 일본 굴지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선다. 책은 이처럼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신화를 창조한다는 뻔하고 뻔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 또 한 소녀가 기업을 일구기까지 80여 년의 생애가 일본의 경제성장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전혀 새롭지 않다.

얼핏 들어도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줄거리지만 오싱은 1983년 일본에서 드라마로 제작돼 평균 시청률 50%를 넘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으며 해외 86개국에서 방송되는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일본인들을 "오싱열풍"에 빠뜨리며 오싱 신드롬까지 일으켰다.

이런 오싱이 최근 드라마 오싱 30주년을 맞이해 영화로 돌아오면서 책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한 여자의 80여 년 인생을 할머니 오싱이 손자 케이와 함께 여행하며 회상으로 들려주는 방식은 오싱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더욱이 힘들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장면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재충전하고 추스르는 시간으로 찾아온다.

또 책은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전통에서 어느 것을 버리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물질적 풍요에서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효도와 청소년 등 이 시대에 만연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굴곡을 겪지만 앞만 보며 살아가기에도 바쁜 것이 사실이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오싱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 보며 찬찬히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왕년의 침팬지★ "니 얼이 보겠어?"

동물원이나 서커스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있다. 예쁘고 귀엽게만 보이던 동물들도 나이가 들면 '은퇴'를 당하게 된다. 은퇴 동물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야생동물 보호시설 등으로 옮겨진다. 한때 '촉생활'을 미화는 경력에도 출연했던 수컷 침팬지 '컨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마리'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된 컨스는 이곳에서 영화나 광고 등으로 돈벌이가를 세워 침팬지의 탄생을 위한 적지기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 동물 쇼의 웃음, 쇼 동물의 눈물(로브 레이들로 저/박성실 옮김/책공장더불어) 중 - /장경원기자

슈니발렌·마카롱 이을 '영리한 사치' 리스트

화제의 책

라이프 트렌드 2014 그녀의 작은 사치

김용섭/부키

작년에 선보인 '라이프 트렌드 2013'에 이은 2번째 신감각 트렌드서다. 책은 통계와 숫자 대신 우리가 겪고 누리는 일상의 트렌드를 통해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 생각의 코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작년 주인공이 '오빠'였다면 올해 책의 주인공은 '그녀'다. 그녀? 그녀들? 그녀는 작은 사치의 주역인 2030 여성들이다.

망치로 깨 먹는 독일 과자 '슈니발렌'과 프랑스 최고급 '마카롱' 매장에서 그녀들은 이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다. 네일케어를 받고 뷰티제품을 소비하는 그녀들도 마찬가지. 불황이라 돈이 없다고 하지만 욕구마저 없을 수는 없다. 그녀들은 과거 명품을 사던 소비 패턴을 자기 만족이라는 명제 아래 '가치 소비'로 바꾸고 있다.

이런 가치 소비는 불황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계속 늘고 있다. 팍팍한 현실에서의 위로가 필요하고 돈이 없는 현실을 극복하는 매우 똘똘한 처세술이자 삶의 지혜가 된다. 책은 이런 작은 사치가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의 라이프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흐름이 될 요소라는 것이다.

이처럼 책에서는 2014년을 관통할 트렌드 22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통해 불황을 매개로 인사이트도 던져준다.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단서가 창조적으로 해석되고 재배열되면서 만나게 되는 2014년이 기대된다. /황재용기자

발라드 '실험' 성공한 그녀들

다시 센 언니가 그리워져요

'그리워해요'로 차트 1위 2NE1

2NE1이 유재 발표한 세 번째 싱글 프로젝트 '그리워해요'로 정상의 걸그룹임을 입증했다. 기존의 에너지 넘치는 일렉트로 힙합이 아닌 겨울 감성을 물씬 풍기는 발라드로도 차트 정상에 올라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여성스럽고 섹시한 매력을 한껏 담은 뮤직비디오로도 화제를 모았고, 5년차 그룹의 끈끈한 팀워크를 확인한 노래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다.

그리워해요 남녀 간의 평범한 사랑을 넘어 가족, 친구끼리 느낄 수 있는 사랑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새로 다가오는 사람에 전하는 내용이자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 담았다. 멤버들이 녹음 때 서로를 생각하며 불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나중에 2NE1이 아닌 각자 활동한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씨엘)

참피할 정도로 녹음할 때마다 눈물이 났다. 테디 오빠(프로듀서) 앞에서 잘 울지 않는데 노래하며 엉엉 울었다. 테디 오빠가 놀라더라.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박봄)

전에는 어려서 감정 표현과 전달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나름 들어볼 여유가 생겨서 감정 표현이 잘된 것 같다. (공민지)

씨엘 올누드 '그리워해요'를 처음 듣자마자 날것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어떤 옷도 이 음악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누가 시켰다면 절대 안 했을 텐데 내가 먼저 제의했다.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게 콘셉트였다. 헤어와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냥 찍었다. 가릴 곳은 가렸는데 더 자세한 건 노코멘트다. (씨엘)

처음에는 네 명 다 벗고 하자길래 우리는 기겁을 했다. (박봄)

그런다고 우리에게 플러스 효과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산다라박)

단순한 누드가 아닌 노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봐줬으면 한다. 다행히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 같다. 할머니가 됐을 때 되돌아보면 감사할 거다.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 (씨엘)

씨엘 "신곡 듣자 날것 이미지 내가 먼저 전라노출 제안" 월드투어로 멤버 정 더 쌓여

월드투어 2012 데뷔하고 단 하루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 월드투어를 하면서 새로운 팬을 만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문화도 배우며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다. 마치 친구들끼리 여행하듯 추억을 만들었다. 한국 활동은 많이 못 했지만 걸어온 길을 천천히 둘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멤버끼리 더 각별해졌다. (박봄)

월드투어 2014 내년 3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두 번째 월드투어를 한다. 지난해 투어 때는 아쉽게도 신곡 무대가 없었다.

이번에는 정규앨범으로 활동한 다음에 새로운 무대들로 투어를 채우고 싶다. 회사에 소속 가수가 많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지금 정규 음반이 아닌 싱글을 내게 됐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욕심을 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씨엘)

센 언니 이전에도 '아파'나 '론리' 같은 부드러운 곡들이 있었다. 다음에는 다시 센 언니의 이미지를 찾고 싶다. 그런 걸 못 했더니 몸이 간질간질하다. 이번 음악처럼 발라드를 하면서 가끔 이미지를 희석시켜야 중간선을 찾을 수 있다. (산다라박)

연애 (한이슬과) 테디 오빠의 연애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축하한다. 요즘 공개 연애를 많이 하더라. 진심으로 하고 싶다. (산다라박·박봄) 언니는 연애 금지가 풀렸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다. 남자가 생겨야 될 텐데. 생기면 알려드리겠다. (씨엘)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석은지

star bag

3인조로 뭉친 젝스키스

1990년대 대표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가 3인조로 다시 뭉친다.

젝스키스 출신으로 듀오 제이워크를 결성한 **장수원**과 **김재덕**이 다음달 1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DSP미디어의 첫 패밀리 콘서트 'DSP 페스티벌'에 출연을 확정했다. 앞서 은지원이 출연을 결정해 과거 6명의 멤버 중 3명이 다시 무대에서 뭉치게 됐다.

팬 보낸 쌀 16t 이웃돕기

한류스타 **장근석**이 팬들에게 받은 쌀 화환 16.66t을 기부하기로 했다.

소속사는 26일 "장근석의 팬들이 18일 열린 KBS2 수목극 '예쁜 남자' 제작발표회장에 보낸 대규모 쌀 화환이 독거노인, 아동보호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쌀 화환은 총 16.66t으로, 약 13만 명의 인원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양으로 전해졌다.

中 콘서트 한국대표로 참석

각타기 30일 중국 베이징 우커송 체육관에서 열리는 '보이스 오브 월드' 콘서트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중국 절강위성TV가 주최하는 이 콘서트는 세계 각국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 시리즈에서 활약한 각국의 심사위원과 우승자들을 초청해 꾸미는 공연이다.

듀엣곡 '스페셜 러브' 발표

가수 **휘성**이 **거미**와의 듀엣곡 '스페셜 러브'를 발표한다.

8월 군 복무를 마친 휘성은 29일 '스페셜 러브'로 가요계에 정식 컴백한다. 이 곡은 거미 1집 수록곡 '두 잇' 이후 10년9개월이 만에 선보이는 휘성과 거미의 듀엣곡이다. 김도훈·에스나 작곡, 휘성 작사의 미디엄 R&B 장르로, 정통 휘하 비트에 불루지한 보드워킹으로 이뤄졌다.

여린 효린으로 돌아왔다

첫 솔로앨범 쇼케이스

걸그룹 최고 보컬리스트로 꼽히는 씨스타의 효린(사진)이 데뷔 3년 만에 솔로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다.

26일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첫 솔로 정규앨범 '러브 앤 헤이트' 쇼케이스에서 "씨스타와 함께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친구들과 함께해놓은 그림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씨스타의 효린과 다른 개성을 보여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효린은 김도훈이 작곡한 브리티시 레트로 팝 스타일의 '론리'와 용감한형제가 쓴 힙합 R&B곡인 '너밖에 몰라'를 공동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그는 "씨스타로 활동할 때는 힘 있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랑에 상처받은 아픔을 여리고 여성스러우면서 성숙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

/유순호기자 nuno@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걸그룹 트렌드 극과 극

올겨울 가요계에 트렌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섹시' 로 컴백을 알린 걸그룹 미쓰에이와 비스트의 현승과 포미닛 현아가 결성한 혼성 듀오 트러블메이커가 섹시하고 화끈한 퍼포먼스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크레용팝을 비롯해 5인조 신인 걸그룹 틴트와 신인가수 엔씨아는 귀여움과 건강한 매력을 앞세웠다.

◆ 섹시하고 화끈하게

올겨울 섹시 열풍의 시초는 트러블메이커와 미쓰에이다. 신곡 '내일은 없어'로 돌아온 트러블메이커의 현아와 현승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연기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랬다. 티저 이미지와 무삭제판 뮤직비디오는 섹시를 훌쩍 넘어서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미쓰에이는 섹시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몽환적이고 시크함을 내세워 미쓰에이에게 맞는 섹시함을 표현했다. 은근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묘한 눈빛을 흘리며 아찔한 몸짓으로 남심을 사로잡고 있다.

틴트

◆ 풋풋함+귀여움 매력 발산

상큼한 매력을 앞세워 올 상반기 가요계를 평정한 크레용팝이 연타석 홈런을 노리고 있다. 26일 스페셜 싱글 '크리스마스'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한 크레용팝은 이번에도 귀여움을 선택했다. 펑크와 디스코에 기반을 둔 댄스곡으로 새롭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결합했다.

17~20세로 구성된 걸그룹 틴트도 데뷔곡 '첫눈에 반했어'의 무대에서는 기차놀이를 연상시키는 안무로 또래 맞춤형 발랄 매력을 발산한다.

18세 소녀 가수 엔씨아(NC.A)도 통통 튀는 안무와 귀여운 매력으로 무장한 신곡 '오 마이 갓'으로 삼촌팬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장성은기자 sse@metroseoul.co.kr

FashionN

깐깐한 쇼핑플래너

follow美2

토요일 밤 11시 제작지원 GS SHOP

t.cast

이 프로그램은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1인식’에 맛들인 홈플러스

하반기 관련매출 36% 증가 상품수 늘리고 기획행사도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소용량 포장을 비롯해 1인식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로 편의점에서만 많이 판매되고 있던 1인식 식품이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 대형마트를 찾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먹거리 상품의 매출도 함께 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1인식 먹거리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36% 신장했다. 상품 수 역시 45개로 시작해 지금은 71종을 선보이고 있을 정도.

이전에 1인식이라 하면 샌드위치나 삼각김밥과 같은 간단한 간식류의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찌개와 반찬류와 같이 제대로 된 식사를 위한 상품들도 수요가 늘었다. 이에 따라 콩조림·견과류 멸치볶음·마늘 장아찌 등 다양한 종류의 반찬류도 소포장 판매하고 있으며 1인용 포장 김치의 매출도 월평균 18% 신장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전국 매장에서 싱글 가구를 위한 1인식 먹거리 '나 혼자 산다' 먹거리 대전 행사를 연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오뚜기 맛있는 순두부 찌개 등 4종에 한해 99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윤정원기자 jnwn@

올 연말 선물 ‘예술’일세

그림·공들인 장식 소품 등 ‘아트’ 판매 온라인몰 클릭

연말이 다가오면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올해는 상품권·건강식품 등 평범한 선물 대신 소장가치가 높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림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선물하는 아트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림은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 고르는 품목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감동은 그만큼 커진다. 특히 최근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아 더욱 인기다.

비핸즈의 그림 전문 온라인숍 아트앤은 국대호·조장은 등 유명 현대미술작가 20명의 작품 중 각 2점씩 선별, 판화로 판매 중이다. 한 작품당 200여 개 한정 제작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모마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이색 화병 '이색 초크보드 베이스'가 불티나게 팔린다. 실제로 꽃을 꽂을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공기정화 기능을 갖췄으며, 앞면의 칠판에 메시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품 전문 쇼핑몰 울스튜은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사슴 벽 장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천연경판으로 만든 사슴 벽 장식은 화학약품과 착색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다.

비핸즈의 임은정 이사는 "예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트렌드가 선물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se@metroseoul.co.kr

김천휴게소 갓지은 압력솥밥 인기 ‘후끈’

경부고속도로 김천 휴게소(부산방향) 식당에서 이용객들에게 공기밥이 아닌 즉석에서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을 제공해 화제다.

김천휴게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화물차 기사인 김성동(35·구미시)씨는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서 직접 그릇에 담아주는데 밥이 차지고 진 밥처럼 정말 맛있다"며 만족해했다. 실제로 서비스 시범 이후 이 휴게소의 한식당 매출은 기존 대비 약 13%가량 증가했다.

기존 방식인 보온고에 저장한 공기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증발하는 등 '밥맛'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고객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이런 점에 착안해 실시한 '즉석밥 제공 서비스'가 휴게소 이용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삼립식품 김천휴게소(부산방향) 운영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비보라이트 캐리어’ 끌면 공항시선 끌겠네

아메리칸 투어리스터의 비보라이트 제품은 200도의 고온 환경에서 30t의 무게에 달하는 압력으로 가방의 판(Shell)을 성형해내는 프레스프로 공법을 사용해 튼튼하면서도 유연성이 좋아 외부 충격에도 강한 제품이다. 다이아몬드 피니싱(마감 처리)을 활용해 제품 표면 강도를 높여 스크래치를 최대한 방지한다.

2011년부터 국내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온 쌤소나이트는 2013년에는 서양화가 황주리 작가의 '인생 여리는 주제로 '식물학' 연작 중 한 작품을 도입했다. 기존의 캐리어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색감을 사용한 제품으로 '작품'을 구입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것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어린이용 여행가방 '쉐미즈'는 외부 충격에도 강한 ABS 소재에 탄력이 좋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적용해 가방으로 장난을 치고 험하게 끌고 다녀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

여름습기 먹은 겨울이불 그냥 덮게?

침구 소재별 세탁방법

극세사-뜨거운 물에 수축 오리털-알칼리세제 안돼 면-헹굼제로 정전기 방지

두툼한 겨울 이불을 꺼내야 하는 시기다. 여름내 묵혀뒀던 이불에는 세균·진드기 등이 득실거릴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뺀 뒤 사용해야 한다. 피죤이 이불 소재별 올바른 세탁법을 공개했다.

극세사 이불은 세탁기의 이불빨래 전용 코스를 사용하거나 손세탁하면 된다. 세제를 푼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 때가 빠져 비교적 세탁하기 쉽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소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45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서 빨아야 한다. 기모 사이에 세제 찌꺼기가 낄 수 있는 섬유 특성상 가루 세제보다는 액체 세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리털 거위털 이불은 기본적으로 물빨래가 가능하다. 물세탁할 때는 울샴푸 등 중성 액체 세제로 미지근한 물에 빨아야 한다. 알칼리성 세제로 세탁 시 유분기가 빠져나가 이불이 푸석해질 수 있어서다.

면 이불이나 합성 섬유로 된 이불은 중성 세제나 알칼리성 세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헹굼 물에 섬유유연제를 넣어 사용하면 섬유가 부드러워져 정전기가 덜 발생한다.

/박지원기자

늘어나는 포장이사 피해…가맹본사 ‘뒷짐’

포장이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9월 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같은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게 했으므로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윤정원기자

르네상스 서울호텔 새 이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최근 호텔의 새로운 영업 관리 총괄 이사(Director of Operations)로 마이클 먼로(사진)를 선임했다.

스위스 호텔학교 레로쉬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먼로 이사는 1986년 호주 시드니 리젠트 호텔을 시작으로 27년간 호주, 스위스, 영국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는 연회장을 비롯한 식음료 업장, 프런트 오피스, 하우스 키핑 등 고객과 접점에 있는 호텔 운영부서를 총괄하게 된다.

/송재용기자

겨울철 무릎 통증 '퇴행성관절염의 신호'

퇴행성관절염 조기 치료 중요…말기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인 치료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안모(63)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와 함께 심한 무릎 통증이 시작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소에도 O자형으로 다리가 휘었던 그녀의 다리 변형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일 만큼 심해졌다. 또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 보행에도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그녀는 딸의 설득을 못 이기고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 그녀는 간단한 진단을 통해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았다. 보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그녀의 퇴행성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안산 튼튼병원 김형식 원장이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상담하고 있다(왼쪽). 안산 튼튼병원 의료진이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을 진행 중인 모습

◆퇴행성관절염,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빈도 높아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이다.

아직까지 퇴행성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차성(특발성)으로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특정 관절 부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차성(속발성) 퇴행성관절염의 경우는 관절이 맞닿는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세균성관절염이나 결핵성관절염으로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심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퇴행성관절염의 조기에는 관절염이 발생한 관절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나며 관절을 움직일 때는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움직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수반된다. 통증 외에도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부종, 관절 주위의 압통이 발생하며 관절 면의 변성으로 운동 시 마찰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 간헐적인 조기 치료가 관건

퇴행성관절염 조기 증상은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인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통증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기에 퇴행성관절염을 잡기 위해서는 조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을 찾아 보존적인 치료(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보존적 치료 방법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관절의 변형이 계속 진행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으로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 내 유리체 제거, 활막 절제술, 골극 제거술,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등이 있다.

그중 최근에는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이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해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은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환자의 관절 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거돼야 할 뼈의 각도와 두께, 간격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오차 없이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의 성공률이 대폭 상승했으며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 및 출혈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재활 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색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확률도 감소한다.

특히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개인의 체형에 따른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인공관절을 15~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인공관절은 장기간 사용하면 진짜 연골처럼 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격렬한 운동 및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김형식 안산 튼튼병원 병원장은 "수술적 치료는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충분한 검사를 받은 후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려면 허벅지의 근육을 길러주는 수영과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중심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쪼그리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이대 연구팀 국내 최초 게이츠재단서 후원

이화여대 김은미(사진)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은 연구팀이 최근 게이츠재단으로부터 국제 보건의료 및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월부터 3년간 총 4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한국의 국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학제 간 융합 연구가 진행되며 특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국제대학원과 여성 및 어린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을 축적 [illegible] 의학전문대학원 [illegible] 기대된다. 또 연구팀은 글로벌 헬스 인스티튜트 포 우먼 앤드 칠드런(가칭)을 발족해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첫선

한국의료관광전문가교육원이 최근 제일사인 푸드에듀센터와 연계해 의료관광객을 위한 환자식 메뉴 개발 전문가 교육인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 과정을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이미 국내 최초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개설해 2010년부터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교육원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의료관광 산업에 비해 아직까지 열악한 우리나라 병·의원의 환자식 및 영양 서비스 제공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특히 교육과정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메뉴 개발 및 영양 관리 지침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진행되며 우수 강사진들의 체계적인 이론 교육 및 실제 적용되는 실습 강의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의료관광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의료기관의 수익성 향상 등 의료관광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재용기자

건강기능식품도 '포장이 전략'

젊은층 겨냥 '쏠라C' 하트캔 리튼 온 성분 정보 키워 신뢰

최근 상품 패키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포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패키지 역시 진화하고 있다.

우선 고려은단은 젊은층을 겨냥한 '쏠라-C미니'의 패키지를 캔으로 제작했다. 제품은 종이가 아닌 캔으로 만들어져 내용물을 다 먹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하트 모양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은데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하트 쏠라-C 캔 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까지 생기기도 했다.

고함량 오메가3가 함유된 LG생명과학의 '리튼 온'은 제품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략이다. 포장 전면에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DHA 57%'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두뇌 발달·성장·면역의 3중 기능성을 갖췄다는 정보를 알기 쉽게 표현했다. 또 소년이 잠수함을 타고 이 제품의 주원료인 해조류 DHA 성분을 찾는 모습을 삽입해 디자인까지 신경 썼다.

/황재용기자 hwanj38@metroseoul.co.kr

'FA 먹튀'와 '드래프트 효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최근 프로야구계는 두 번의 큰 일이 있었다. 하나는 자유계약선수(FA)시장이었고 또 하나는 2차 드래프트였다. 두 농사 결과에 따라 내년 시즌 성적표도 달라진다.

이번 FA 시장에 대해 거품이 생겼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의 효과도 크다. 좋은 성적을 올리면 50억원 이상의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은 훈련 등 시기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굳이 구단이 나서 강제적인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40인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들이 나오는 2차 드래프트는 다른 환경에서 기회와 도전을 얻는 무대다. 선수들도 자세가 남다르다. 소속팀에서 밀려났다는 생각에 독기가 생기고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의식도 생긴다. 구단도 싼값(1라운드 지명자 3억원)에 즉시 전력을 데려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투자에 만큼이나 FA와 2차 드래프트 효과도 차이가 있을까? 역설적으로 역대 FA 이적 선수들의 성공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물론 성공한 선수도 있었지만 대박을 터트리고 부진에 빠지거나 사라진 선수들이 많았다. 그래서 'FA 먹튀'라는 말이 생겼다.

2011년 처음으로 도입한 2차 드래프트에서는 여러 성공 사례가 나왔다. 올해 신인왕을 따낸 NC 다이노스 투수 이재학, 롯데 자이언츠의 30세이브 소방수로 성장한 김성배,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일조한 투수 신용운이 있다. 이들의 투자 대비 효과는 컸다. 내년 FA와 2차 드래프트 선수들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듯 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창원 LG, 전주 KCC 꺾고 단독 2위

창원 LG가 전주 KCC를 제압하며 단독 2위에 올랐다.

LG는 26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KCC와의 원정 경기에서 크리스 메시, 데이본 제퍼슨, 김종규, 양우섭 등 주축 선수들이 두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68-6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LG는 2연승을 달리며 12승6패를 기록, 공동 2위에서 단독 2위로 올라섰다. 반면 KCC는 이날 패배로 연승행진이 끊기며 9승9패를 기록, 5위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는 신인 드래프트 1순위 김종규와 2순위 김민구가 첫 맞대결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김민구는 13점 6리바운드 활약에도 팀 패배로 아쉬움을 남긴 반면, 김종규는 10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제원기자

프로농구 전적 26일

KCC	6	15	23	19	63
LG	8	25	13	22	68

프로배구 전적 26일

대한항공	3	1	러시앤캐시

챔스리그 골 이번엔 손!

손흥민 내일 맨유전 출격…마수걸이 득점포 도전

이번엔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사진)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문에 기막힌 동점골을 꽂은 김보경(24·카디프시티)에 이어 손흥민이 시원한 득점포를 노리고 있다. 손흥민은 28일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열리는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맨유전 출격을 앞두고 있다.

레버쿠젠은 현재 2승1무1패(승점 7)로 맨유(승점 8)에 이어 A조 2위에 올라있다. 3위 샤흐타르 도네츠크(승점 5)와 승점 차가 2점뿐이어서 되지 않이 맨유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16강 진출이 순조롭다.

맨유도 다급한 상황이다. 25일 카디프시티와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EPL 데뷔골을 기록한 김보경의 활약으로 다잡은 승리를 놓쳐 하루빨리 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최근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1차전인 9월 18일 맨유를 상대로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는 시드니 샘이 헤르타 베를린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해 맨유전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흥민은 26일 영국의 축구전문 매체인 '피어 이즈 더 시티'가 맨유가 관심을 가져야 할 3명의 레버쿠젠 스타들에 라스 벤더, 슈테판 키슬링과 이름을 올렸다. /장병호기자 yaw@metroseoul.co.kr

난데없는 '댄스배틀'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의 세인 롱(왼쪽)과 애스턴 빌라의 론 블라르가 25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브로미치의 호손 경기장에서 열린 2013~2014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공을 다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랭킹 1위도 지킨 박인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세계 랭킹 1위로 2013년을 마감했다.

박인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의 선수상'과 함께 '상금왕' 타이틀까지 차지한 박인비는 26일 발표된 세계여자골프 랭킹에서 11.79점을 받아 33주 연속 1위를 지켰다. 25일 CME그룹 타이틀홀더스 대회를 마지막으로 2013 시즌 LPGA 투어가 끝남에 따라 박인비는 올해 말까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예약했다.

마지막 대회까지 박인비와 상금왕을 다퉜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11.08점으로 2위에 자리했다.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3위(9.89점)를 차지한 가운데 펑산산(중국)이 4위(7.02점)로 뛰어 올랐다.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이 6.96점으로 5위에 올랐다. /[illegible]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다른 여자와 수상한 쪽지 주고받는 남친 휴대전화 훔쳐보기 당장 그만둬야 해결

Q Hey 캣우먼

우연히 애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는데요. 그가 꽤 수상한 쪽지를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었는데 상황을 보건대 지난 몇 달간 자주 그 여자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사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대놓고 물어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빗테리총잡

A Hey 빗테리총잡

고경 레퍼토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남자친구·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에요, 흥미로운 것은 모두들 계기가 '우연' '우발' '어쩌다가'라는 거지요. 남의 프라이버시를 훔쳐보는 것은 결코 무의식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내가 상상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목적의식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막론하고 타인의 비밀 문건을 훔쳐볼 권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훔쳐본 타인의 글들이 휴지든 당사자를 명확하게 배출 일은 거의 없고요. 타인의 프라이버시 안에는 설마 저 사람이~ 라는 주변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게 인간이죠. 설마 가족이나 연인이라면 서로에게 숨기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자, 일단 봐버렸으니 그다음이 문제인데, 내가 평소에 상대를 얼마나 의심했는지에 따라 글의 문맥이 전혀 달라지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또한 의심이라는 감정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뒷받침해주는 한 무한 증폭되지요.

현데 그렇게 자주 봐왔으면 지금쯤 그건 바람이 아니라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더 트러블자 이번에는 당신에 대한 남자친구의 의심이 새로 가동될 뿐입니다. 휴대전화를 앞으로는 안 훔쳐보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프라이버시를 훔쳐본 게 정당화되진 않거든요. /캣우먼

날씨

11/27 水 일출 07:24 일몰 17: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춘천,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추운 날씨는 피부의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땀샘과 피지샘을 위축시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보습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지수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4	9		6	7
6		7	8	5				
8			3		5			4
				8		7	3	
5			9		2			8
1		4	7	3				
				9	4		2	1
	9							

			1		4			
8	6			9			1	7
		5	7		8	3		
		4				5		
1				7				6
		7				2		
		8	9		6	7		
2	3			4			9	5
			3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믹스터
(제플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saju...com

전공과 무관한 회계 관련 공부 내후년 시험운 좋아 합격할 것

계혁윤씨 남자 87년 10월 7일 양력 오전 3시55분

Q 전공과는 무관한 회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운이 좋을지, 원래 제 사주서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또 시험운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계찬당시 (…)을 잘 못 자고 끼니를 거를 정도로 바쁘거나 매우 열심히 공부·학을 배워야 합니다(…)으로 삼은 것은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논과 밭을 가는 소의 형상으로 근면과 성실을 알차게 분주하게 활동하는데 사주 뿌리에 재물의 창고를 두었으므로 작은 부자로 궁핍함이 없는 길신으로 분류됩니다. 성지가 강직하고 독립(獨立)하는 기운이 있으니 조직생활하여 중년 이후 발복하도록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대세가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의 정규직이겠으나 2015년, 2016년에 시험운이 들어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고시 수준의 시험이겠으나 성실하면 잘되는 방향으로 일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직 후 팀장과 사사건건 충돌 지금 이직하면 호전 기미 없어

닉극여사 여자(생년월일시 적공개 희망)

Q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는데 새 팀장(복직 전 제 자리)과 잘 맞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그만두고 다른 일(가구·목재 만드는 일이나 인테리어)을 해도 될까요? 또 이사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A 43세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진단과 종일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직업군에 천살(天殺)이 있는데 태어나가 잘 귀국되어 한쪽이 묘 상태로 곧 단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되며 필연적으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운이 좋은 곳 이직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편함이 계속되니 다른 조직에 가더라도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견디고 노력하십시오. 자신만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2014년 문서운이 당신살과 합쳐 정신이 혼란스럽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니 집의 이전이나 변동은 하든 안 하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사주를 듣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7일(음 10월 2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중재한 일은 성사될 듯. 60년생 위기 뒤에 기회 찾아온다. 72년생 큰일을 하려거든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마라. 84년생 꿈을 실현할 돌파구는 열린다.

소: 49년생 마음 비우면 고민 사라진다. 61년생 쌓이 미인이어야 술은 사위 얻는 법. 73년생 공들인 일은 드디어 빛을 본다. 85년생 이성의 달콤한 제안 멀리하라.

호랑이: 50년생 서둘러 새 일 만들지 마라. 62년생 고난 겪은 사람은 끝이 보인다. 74년생 조직의 휴가시기가 되는 일에 잘 견어라. 86년생 잘의 활약소가 될 정보 된는다.

토끼: 51년생 배우자에게 가뿐 상했던 일 해소된다. 63년생 돈 문제 해결되니 걱정 마라. 75년생 아픈이 있는 곳에 추풍 생긴다. 87년생 친구와의 돈 거래는 삼가라.

용: 52년생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마라. 64년생 화가 나도 참아라. 76년생 여럿사람과의 언쟁 충돌 피하는 게 좋다. 88년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애드게 한다.

뱀: 53년생 갈 곳 많아 하루가 짧다. 65년생 동료와 일로 인한 갈등 조심할 것. 77년생 미워하던 상사가 회개의 손길을 한다. 8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문앞에 당도.

말: 42년생 문서로 인한 다툼 막아라. 54년생 수입 늘어 여유롭다. 66년생 당골한 일 골라하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라. 78년생 확실한 일처리로 신뢰 깊어진다.

양: 43년생 내 것에 집착하면 체면 손상. 55년생 꽃이 진다고 버림 닷하지 마라. 67년생 서운하다고 남 원망하면 일이 더 꼬인다. 79년생 기회 왔을 때 재능 보여라.

원숭이: 44년생 자손에게 경사 생겨 아오. 56년생 돈 버는 일에 가속도 붙는다. 68년생 좋은 일 뒤에 늘 조심할 것. 80년생 가까운 벗들과 모처럼 한잔하니 즐겁구나!

닭: 45년생 서두르면 큰 문제 생긴다. 57년생 사람이 재산이니 인맥 관리 잘하라. 69년생 상사와 견해 차이로 골이 깊어진다. 81년생 적이 내 편이 되니 헷갈린다.

개: 46년생 외출 땐 가스·불 조심. 58년생 낙관했던 일에 어려움 생긴다. 70년생 직장에서 심란했던 마음 안정된다. 82년생 깊어진 사랑에 연인이 더 사랑스럽다.

돼지: 47년생 대접받으려면 어렷사람 칭찬할 것. 59년생 자녀가 귀신 체면 세워준다. 71년생 먹마실이 동해 움직이면 좋나. 83년생 상사의 지시 진의 파악 잘하라.